

## 제 3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시: 단기4285(1952)년 6월 6일 오전 10시 50분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15명

劉正斗,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金南鎭, 李在洪, 林一男, 金京炫,  
金八用, 鄭應杓, 金慶禧, 朴贊圭, 金吉煥, 金子洪

2) 불참의원: 6명

陳福春, 文宅鎬, 李文吉, 金采庸, 吳世一, 金永完

3) 참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徐良鳳 부시장, 姜聲哲 시정계, 黃道益 총무과장, 梁甲承 회계계,  
金容俊 산업과장, 吳在鵬 건설과장

4) 의회의 간사, 서기

朴燦大 간사, 高光洙 서기, 千世鳳 서기, 李民景 서기

4. 개 회 식:

1) 국민의례

2) 개 식 사: 朴燦大 간사

3) 식 사: 劉正斗 의장

4) 폐 식 사

5. 개회선언

劉正斗 의장

(오전 10시 50분)

6. 보고사항:

- 1) 제 2회 임시회의 제 3차 회의록 낭독: 朴燦大 간사
- 2) 내무위원회 결과보고
- 3) 문교사회위원회 결과보고

◇ 金子洪의원 번안동의

- 제 2회 임시회의 제 2차 회의시 가결을 본 단기 4285(1952)년도 식량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추가의 건에 대하여 작일 내무분과위원회에 재검토한 결과 모순된 점이 많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번안동의 할 것을 결의하였고 오늘 재심하기로 번안 동의하겠습니다. (재청 가결)

◇ 朴贊圭의원 긴급동의

- 노무자 징용에 대하여 노무자 급식용으로서 식량을 1홉 내지 2홉을 시민들에게 각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행정당국과 절충하여 다른 좋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동의

◇ 金三星의원

- 다른 좋은 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질문

◇ 朴贊圭의원

- 시민에게 각출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그만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徐良鳳 부시장

- 행정부에서도 일반시민에게 각출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민망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시에서 이 문제 대하여 누차 상부에 절충도 해보았으나 별도리가 없었고 지방에서 하라는 명문으로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풍부하지 못한 빈약한 시 예산에 의존할 수 없어 당분간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金南鎭의원

- 이번 시립병원의 부정 사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란다.

◇ 徐良鳳 부시장

- 시립병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있어서는 13만 시민에 대하여 면목이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조사중에 있으니 금명간에 조사 결과가 들어 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 劉正斗의장

- 노무자 식량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기로 하겠음

◇ 劉正斗의장

- 金子洪의원의 번안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단기4285(1952)년도 식량특별위원회 회계 세입세출 예산추가의 건을 검토하시기 바람

◇ 李小圭의원

- 검토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으로 劉正斗, 李在洪, 金子洪, 朴贊圭 4의원이 되어 주셔서 심의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서 보고기로 동의(재청 가결)

◇ 鄭應杓의원

- 전문위원을 '기수'로 하기 위하여 1명을 증해서 5명으로 하자(동의자 李小圭의원 수락)

◇ 劉正斗의장

- 金三星의원을 지명하다.

7. 부의안건:

- 1) 연도내 일시차입의 건
- 2) 추가경정 예산심의의 건

8. 토의안건:

※ 연도내 일시 차입의 건

◇ 총무과장 黃道益

- 차입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설명요지)

(1) 지방세법이 개정중인 관계로 각종 부과세는 7월말경에야 시 수입이 되므로 그 동안의 현금고갈로 인한 경리난을 조정함과 동시에 시행정의 침체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함.

(2) 특히 급선무인 하수도 준설공사는 시기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시민의 요청도 있고 해서 불원간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차입하지 않으면 안될 난관에 봉착되었음.

◇ 金子洪의원

- 금반 기채한 1억圓중에 또 의사당 페인트 공사비 350만圓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반 차입한 5천만圓에서 지불하지 않았다.

◇ 총무과장 黃道益

- 낙찰된 후에 더 수리를 요할 데가 있어 350만圓을 추가했다.

◇ 李在洪의원

- 비품구입비가 1천만圓이고 이 회비가 2천만圓이면 벌써 2천 3백 30만원이 비어져 추가경정이 필요하다.

◇ 총무과장 黃道益

- 추가경정의 건도 오늘 본 회의에 부의했다.

◇ 李福柱의원

- 오물 청소와 시내 산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동차 1대가 필요하다.

금반 기채하는 1억圓 중 자동차 구입비가 안 들어 있으니 차입하는 입장이 라면 이 문제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 총무과장 黃道益

- 하수도 준설공사도 청소문제의 하나이다.

임시 응급대책으로 오물 제거하는데에 자동차를 빌려서 하고 전일 시간부 회의에서도 시장 방침이 오물세를 폐지하고 청소사업을 동 자치적으로 실시

케 할 계획이다.

◇ 陳福春의원

- 문교사회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이제 와서 동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의 독재성이다. 문교사회위원회의 결의도 존중해 주기 바란다.

◇ 鄭應杓의원

- 전반 청소사업을 죽동에서 자치적으로 해보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에 화원했다.

◇ 총무과장 黃道益

- 죽동에서 자치적으로 해보았으나 나중에는 실패했다. 그 당시는 구역적으로 국한된 일이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전 시적으로 동에다 완전히 맡기고 손수레도 배치하고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방침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

◇ 李小圭의원

- 청소문제에 대한 시민의 여론과 실정, 경찰서와 청년단간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건 데 처음 죽동에서 실시하여 실패하였다 하나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그것은 손수레 1대가 3일만에 1회씩 청소사업에 종사하고 그외는 동회에서 유리하게 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하며 인접 남교동에서도 해보겠다고 하였으며, 경찰서에서도 각동에 맡기면 파출소 직원들을 동원해서 적극협조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한청에서는 구입해서 각 동단원을 동원해서 봉사하도록 하고 비용은 시에서 징수한 오물세의 범위에서 하겠다는 의견

◇ 金京炫의원

- 청소사업 문제 및 식량배급소 문제도 있으니 각 동회장을 소집해서 물어보자.

◇ 李在洪의원

- 문교사회위원회의 결의도 보지 않고 동장 소집은 안되니 회의 끝나면 위원

회를 열자

◇ 劉正斗의장

- 하수도의 소제와 준설의 차이점은?

◇ 건설과장 吳在鵬

- 각 가정에서 나온 오물을 소제라 하고 하수도의 전폭적 오물 소제를 준설이라 한다.

◇ 李小圭의원

- 전업자에게 입찰시키는가? 시에서 지명한 업자에게만 시키는가?

◇ 건설과장 吳在鵬

- 내무부 통첩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지명업자가 6명이 있는데 이들 지명업자에 한하여 입찰하겠음.

◇ 金三星의원

- 현행 상공은행에서는 대출 이율이 5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데 고리 5전 4리까지 해서 구태여 조흥은행에 기채할 것이 어디 있는가?

◇ 상공은행 대부계원

- 현행 시중은행 대출이율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설명요지)

- (1) 일반대출 이율은 일보 5전을 초과하지 못함
- (2) 특수대출은 정부계획에 의하여 대출한 것인데 이율은 3전 5리까지도 함
- (3) 전반 상수도복구공사비 1억 2백만원도 3전 5리로 하였음
- (4) 금융통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李小圭의원

- 각 은행이 통일되어 있나?

◇ 상공은행 대부계원

- 5전 이하로는 될 수 있는데 5전 이상은 초과 못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

◇ 李在洪의원

- 조흥은행 대부계원을 출석시켜 물어보자(재청 가결)

◇ 徐良鳳 부시장

- 내가 상세히 검토하지 못한 불찰을 사과한다. 시 금고로 이관한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사계서도 말이 있었고 광주 상공은행 지점장까지 왔으나 말못할 이유를 듣고 돌아간 일도 있다. 시에 협조할 수 있는 은행으로 생각해서 시 금고를 이관하였는데 방금 들어보니 유감스럽다. 즉시 조흥은행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

※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 건

◇ 李在洪의원

- 추가예산 심의의 건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기로 동의(재청가결)

◇ 金三星의원

- 오전 중 회의를 휴회기로 동의

◇ 金京炫의원

- 헌법 제 2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 민의를 배반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직접선거를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으므로 즉시 국회해산에 대한 결의문을 작성하여 전달의원 2명을 파송 해서 대통령 각하에게 보내자 긴급동의(재청)

◇ 金京炫의원

- 결의문 작성과 전달의원 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겠음

◇ 劉正斗의장

- 찬성하신 분은 기립하십시오.(전 의원 찬성)

◇ 劉正斗의장

- 어제 도 의장을 만났는데 도에서는 이미 결의되었고 전 시·읍·면에서도 결의될 것이라 하며 각 지방에서 7일까지 도에 집합하면 같이 중앙에 가겠다고 개인 의견을 들었다.

◇ 李在洪의원

- 전달의원 선정은 의장께서 더 생각해서 오후 회의에 지명할 것 동의(재청 가결)

◇ 鄭應杓의원

- 식량배급지 잡부금을 부수시키지 않도록 시장이 각 동장에게 엄중 시달하는 것을 자신도 목격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소소한 문제이나 문교사회위원장인 李福柱, 金京炫의원께서 진상을 조사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 劉正斗의장

- 휴회선언 휴회 (오후 1시 30분)

◇ 劉正斗의장

- 속개선언 (오후 2시 40분)

◇ 劉正斗의장

- 국회해산 결의문 전달의원으로 金八用, 金京炫의원을 지명하다.

◇ 金子洪의원

-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1일간 시 주무과 및 사업장 각 동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20조 동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 시장에게 통고 할 것을 동의(재청)

◇ 鄭應杓의원

- 감사기간을 15일간으로 단축할 것을 개의

◇ 李在洪의원

- 목포시정 전체면을 감사하는 것은 중대한 것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구체적

인 체계표를 작성해서 차기 본 회의에 제출토록 하자는 재개의(재청가결)

◇ 李小圭의원

- 대출이율은 통화정책위원회에서나 부시장 말씀과 같이 한국은행에서도 5전 이하는 할 수 있으나 5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니 전반 기채한 5천만圓의 이율도 5전 이하 4전5리로 해주고 금반 1억圓의 기채도 최고 5전 이하 4전 5리까지 해주고 금반 1억圓의 기채도 최고 5전 이하 4전 5리까지 시정기로 동의(재청가결)

◇ 金三星의원

- 이율은 4전 5리로 결정하고 전반 5천만圓에 대한 초과 이익금을 환부 받도록 李小圭의원의 동의에 첨가(가결)

◇ 金子洪의원

- 사무감사에 대한 체계표는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키로 하고 시장에게 통고는 내일 6월 7일자로 할 것을 번안동의(가결)

◇ 李在洪의원

- 북교국민학교 사건 조사보고(요지)

교장에게 문의하였던 바 1학년 5반 최선생이 아동 교본대 60명분 29만7천圓을 숙직실에서 분실하였으나 사재로 충당하였고, 그 후 동교 사친회장 신백균씨가 사친회의 결의를 얻어 교실내 설비비로 회장명의로 학부형에게 일률적으로 5천圓씩 각출키로 했는데 박영산씨 부인이 잘못 듣고 말이 된 것 같다.

◇ 金京炫의원

- 유달국민학교 아동 구타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키 위하여 세분의원이 가서 조사했던 바 사제지간에 있을 수 있는 정도 내에서 매질하였으나 오히려 그 교사는 학부형에게까지 가서 사과하였다고 하여 우리는 오히려 그 교사에 대해서 미안스러웠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실한 진상을 파악해서 의회에 발의하기 바란다.

◇ 조흥은행 대부계원

- 5전 4리 이율에 대한 설명(설명요지)

이식제한령에 의해서 5전 4리로 하였고, 5전을 초과치 못한다는 통화정책위원회의 통첩을 아직 받지 않았음

◇ 李小圭의원

- 상공은행은 5전을 초과치 못하는데 조흥은행만이 5전 4리를 적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전반 5천만圓에 대한 이율도 4전 5리로 해주고, 금반 1억圓도 4전 5리로 해줄 것이며, 앞으로 기타 기채도 4전 5리로 해줄 것인가?

◇ 조흥은행 대부계원

- 내가 책임자가 아니라 단언할 수 없으나 4전 5리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 책임자에게 말씀해서 되도록 하겠다.

◇ 劉正斗의장

- 회의록 서명에 金子洪, 朴贊圭의원을 지명

◇ 劉正斗의장

- 폐회선언

(오후 4시 45분)

◇ 폐회식:

1. 국민의례
2. 개 식 사: 간사
3. 식 사: 의장
4. 폐 식 사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함

단기 4285(1952)년 6월 6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朴 贊 圭

”: 金 子 洪

作成者 書記: 千 世 鳳